

보도시점 2023. 3. 31.(금) 배포 2023. 3. 31.(금) 13:00

## 최상대 2차관, 대전소재 지역아동센터 방문,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

- 복권기금이 지원하는 아동센터 야간보호사업, 환경개선사업 애로사항 청취
- 취약계층 주거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의견 수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위원장인 최상대 차관은 3월 31일(금) 대전 소재 정금지역아동센터에서 관련 부처·기관, 시설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과 향후 지원 확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최 차관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년간 복권 판매 수익을 통해 조성된 32조원 규모의 복권기금은 저소득·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복지사업에 사용되어 국민의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방과 후 활동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정부는 이용 아동들이 안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균특회계)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전년 대비 19.7% 증액)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22년 1,580 → '23년 1,892억원(+312억원, +19.7%)

복권기금도 취약계층에 대한 두텁고 촘촘한 보호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①야간보호사업, ②석면제거사업, ③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 중이다.

야간보호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오전 10시~오후 7시) 외에 돌봄교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석면제거 사업은 복지시설의 위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전년 대비 16% 증액하였다.

\* 야간보호사업 : '22년 210 → '23년 249억원(+39억원, +18%)

지역아동센터 석면 제거 지원 : '22년 35 → '23년 35억원

간담회에 참여한 센터 관계자들은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수요가 많은 야간 돌봄교사 지원과 석면제거 등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복권기금의 지원확대를 건의하였다.

또한,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비를 증액\*하고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복권기금이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난 2월 물가·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을 당초 3.1만 가구에서 3.4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지원 : '22년 869 → '23년 당초 910억원 / 변경 985억원  
(전년대비 +116억원, 13.3%)

대전정금지역아동센터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하나인 단열·창호 시공이 이루어진 현장으로, 사업전담기관인 에너지재단 관계자로부터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효과를 청취하고, 이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최상대 차관은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 된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내년도 복권기금 편성 방향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며, 복권기금 취지에 맞는 기금운용을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Zero-Base 검토를 실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새로운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책임자	과 장 김정훈 (044-215-7850)
		담당자	사무관 이범한 (fanhan@korea.kr)